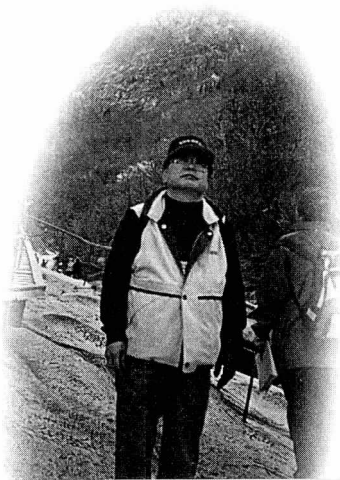
특별기획

첫 금강산 관광의 교훈

오 휘 영

- 본회 회장
- 한양대학교 교수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
- 월간 「환경과 조경」 발행인



금강산에 얽힌 한두가지 이야기

'천길 흰 비단필이 내리드리운 듯하고, 만섬 진주알이 쏟아지는 듯하여라'. 금강산을 노래한 한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룡폭포'의 구절이다. 당대 최고의 문사 최치원은 가장 값지고 귀한 물건인 비단과 진주알을 금강산에 비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무엇이 최치원으로 하여금 최상급의 표현을 헌사토록 매혹했을까? 일만이천을 헤아린다는 빼어난 자태의 봉우리들과 보는 이의 넋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는 맑고 투명한 폭포와 계곡, 계절마다 색다른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색조가 아니었을까?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곧잘 신의 조각품에 비유될 정도로 극찬을 받아왔다. 정철, 이제현, 김시습, 양사언을 비롯해서 중국의 소동파에 이르기까지 금강산을 예찬한 문필가들은 그 수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하다. 또한 '나무꾼과 선녀, 혈망봉 이야기' 등 골짜기 하나, 연못

하나에 얽힌 전설과, 정선, 김홍도, 최북을 비롯한 유명 화가들의 풍경화 역시 부지기수이다. 특히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진경산수화의 분야를 개척한 겸재 정선이 그 가능성을 금강산에서 찾았다 하고 제 눈을 찌른 광기의 화가 최북이 금강산의 비경에 도취되어 죽을 결심까지 했다고 하니, 그 절경이 가히 한반도 내의 으뜸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예술인들에게는 풍부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왔고 일반 관광객들에겐 더할나위없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온 금강산은 명실공히 민족의 영산(靈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강산의 명칭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삼국시대에는 '풍악', 통일신라시대에는 '개골, 상악' 등으로 불렸으며,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는 선산(仙山)으로 불리기도 한 금강산의 '금강(金剛)'이란 명칭은 불교 유입 이후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 '금강'이란 말은 금속처럼 빛나고 굳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스님들이 금강이라는 말의 특성을 금강산과 결부시킨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불교경전의 화엄경에도 그 용례가 엿보인다. 근래에 들어서는 금강은 봄, 봉래는 여름, 풍악은 가을, 개골은 겨울철의 특징을 반영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칭으로 금강산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채롭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금강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있어 단지 '보기 좋은 그림'일 뿐이었다. 한번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이름인 '금강산'은 아깝고도 먼 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간간히 영상자료와 운 좋게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소문으로만 그 일부를 짐작할 수 있었던 금강산이 드디어 그 수려한 자태를 일반에 드러내게 되었다. '비로봉 대자연을 사람아 묻지 마소, 눈이 미쳐 못 보거니, 입이 능히 말할손가, 비로봉 알려 하옵거든, 가보소서 하노라'라고 읊었던 춘원 이광수의 말대로 감히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의 영산(靈山) 금강산을 두눈으로 목도할 수 있

는 기회가 온 것이다.

흥분과 설렘, 기대와 불안이 뒤섞이는 반응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관심을 드러낸 사람들은 역시 실향민이었다. 그러나 금강산의 진면목을 직접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실향민 뿐이겠는가?

금강호의 역사적 첫 출항에는 실향민 이외의 수많은 보도진과 작가, 화가, 환경계인사, 현대 임직원 등 저마다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동승했다. 여기에 언론에 수차례 공개된 출발전 식전행사와 현대 금강호의 위용 등을 재삼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했는지, 그 설레임만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4박5일간의 소중한 경험, 금강산 답사기

반세기만에 열린 금강산 뱃길을 따라 지난 11월 18일 동해항을 떠난 금강호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장전항에 도착한 시각은 19일 오전 6시경, 저 멀리 북한의 장전항이 새벽 어스름 속에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 갑판에 나와있던 일행의 입에서는 절로 함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실향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목청껏 외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금강호가 정박할 장전항은 한편에서는 현대의 새로운 부두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산만한 느낌이었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북한 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황량해 보였다. 그러나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장전항의 분위기와 달리 관광객 일행은 마냥 설레이는 듯, 필요한 수속이 끝날 때까지 곳곳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11시쯤 금강호에서 하선, 세관검사를 마친 일행은 30인승 대형버스에 분승한 후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에 들어갔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온정리 마을까지 신설된 6㎞ 거리의 도로 양측에 둘러처져 있는 높은 철조망과 곳곳에 보이는 민둥산, 다락밭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눈길을 한참이나 붙잡은 것은 마치 마네킹처럼 고정된 듯, 꽤 오랜

시간동안 미동도 않는 북한군의 부동자세였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 일행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만물상이었다. 깍아지른 듯한 층암절벽과 삼라만상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는 기암괴석들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초겨울에 이르러 모든 낙엽을 떨구어 버린 나무들과 그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형체를 드러낸 만물상은, 개골(皆骨)의 말 그대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거칠 것 없이 드러난 온갖 형상의 기암과 괴석들 미력한 글 솜씨로 어찌 담아낼 수 있겠는가? 날이 추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만물상 코스의 경우에는 고지대에 얼어붙은 빙판 때문에 일부 관광코스가 단축되기도 했지만 첫 날의 일정은 대체로 순조로웠다.

이틀째, 우리 일행은 구룡폭포 코스를 관광했다. 설악산의 대승폭포, 개성 대흥산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3대 명폭의 하나라는 구룡폭포는 이름값 이상이었다. 최치원의 극찬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폭포의 장관은 마치 용이 춤을 추는 듯 웅장하고 깊이가 13m나 된다는 구룡연은 돌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장대했다. 한편 19일 새벽 금강호가 장전항에 입항할 때부터 갑판에 나와 고향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던 실향민들은 관광코스마다 차려온 음식을 꺼내 제사를 올리기도 했으며, 북한 관리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북한은 관광코스마다 남녀 각 1명씩 한조로 곳곳에 관리원을 배치해 두었는데 이들의 임무는 낯설은 한국방문객들에 대한 안내 이외에 코스마다 세워진 붉은 글발의 김일성·김정일 사적비를 관리하는 일인 것 같았다. 싸리비를 들고 다니며 눈과 낙엽을 치우기도 했고, 관광객들이 사적비 앞에 깔아둔 작은 흰 자갈을 밟고 사진을 찍는 것을 감시하기도 했다.

수려한 자연 경관 중앙의 장대한 암벽에 음각으로 깊게 새겨진 사람 키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에 대한 찬양문이 눈에 거슬

렸지만, 글발을 제외한 자연보전 상태는 특급수준이었다. 너무 청정한 나머지 미생물이 살지 않아 물고기조차 서식할 수 없다는 비취색의 깊은 물과 곧게 자란 나무들이 이룬 울창한 숲, 뿌리 주변과 바위위에 촘촘히 형성된 많은 양의 이끼들은 북한의 자연보존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정도의 상태라면, 학계에 보고된대로 상당한 수의 야생동물이 서식할 법한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일행 중에서 산새나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던 점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셋째날은 마지막 일정으로 해금강, 삼일포코스를 둘러보았다. 가는 길에 게시되어 있는 '자폭정신,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가 가슴을 섬짓하게 했지만, 유려한 굴곡을 자랑하는 해금강의 풍경과 장군대에서 내려다본 탈속한 듯한 삼일포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삼일포라는 명칭 역시 이곳에 하루 예정으로 내려온 신선이 호수를 둘러싼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만 3일이나 머물게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그 절경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귀선하는 도중, 수천평에 달하는 북한 특산의 참대나무숲을 보게 되었다. 대나무는 기온이 낮은 북한 지방에서는 좀처럼 자라기 힘든 수종인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대나무 연구소에서 육종 개발되었다고 한다. 육종 개발과정 등 궁금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역시 일정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둘러본 금강산 관광의 공식일정은 모두 끝났다. 사실 얼마되지 않는 분량의 글에, 4박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긴 했지만, 금강산에 대한 벅찬 감상을 모두 담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한가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그 자연보전상태 역시 한반도

내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후, 새롭게 남겨진 문제들

금강산 관광이 끝난 후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저마다 한두가지 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화장실 부족, 보행로 난간의 부실을 비롯한 현실적인 탐방상의 문제에서부터, 북한에 지급되는 막대한 관광비용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제기의 폭은 넓고 다양했다. 어쩌면 이런 문제제기는 금강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화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기대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의 논리, 현실논리의 비중 때문에 환경보전의 논리가 소외되거나 밀려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현대그룹은 금강산에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등의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를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정부건 현대건 간에, 어느 측에서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또 한차례 불도저식 개발이 금강산 기슭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장래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것은 도처에 묻히고 버려진 쓰레기더미와 수만명의 발길로 인해 짓눌리고 할켜진 거미줄같은 등산로가 아니겠는가. 이는 22곳에 이르는 우리의 국립공원이 현재 어느정도 몸살을 앓고 있는지를 상기한다면 결코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이카에 몸을 싣고 떠나는 행락객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 인파들이 먹고, 마시고, 버리고, 그리고 밟고 파괴한 자연은 회복의 가능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을 바라보는 여러 목소리 중에서, 특히 환경보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 십년 후, 백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금강산 생태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강산에는 조류 2백여종, 포유류 68종,

파충류 9종, 양서류 10종, 어류 36종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금강산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는 '금강인가목', '반달가슴곰' 등 희귀 동식물도 포함되어 있다. 즉, 백두대간의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금강산은 비무장지대와 더불어 한반도 최고의 생태보존 구역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특정인의 교시에 의해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건 금강산을 지금의 상태로 훌륭하게 보존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우며, 한편 우리의 국립공원을 떠올릴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자연생태계의 완벽한 보전이 얼마나 값진 일이며, 또한 그렇게 조성된 생태계를 둘러보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깨달은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왜 우리에게는 금강산 같은 국립공원 하나가 없단 말인가?' 하는 자조섞인 한탄은 필요치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강산의 하루 관람객 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주기적 생태계의 변화양상을 면밀히 점검하고, 탐방객 모두가 세계수준의 성숙한 관광태도를 견지하는 자세이다.

금강산이 산 중의 금강(金剛)인 것은 수려하고 빼어난 자연문화유산 때문이지, 결코 먹고, 마시고, 쉬는 인공적으로 건립된 위락단지 때문이 아님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다. 일례로 만폭동계곡에 위치해 있는 보덕암 역시, 그 인공물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너무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폭동의 절경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보덕암 제 스스로 산을 위압하거나 혼자만의 위용을 뽐내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모두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자연을 아끼는 이에게만 그 빼어난 경관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다.